

宗 論

권율 도원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1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임진왜란 7년간 왜군 1만 명 이상이 사살되는 전투는 권율 장군이 이끈 행주대첩이 유일하다. 가장 많이 알려진 한산대첩의 경우 왜선 70여 척이 깨지고 수백 명의 왜병이 수장되거나 화살에 맞아 숨졌을 뿐이다. 1593년 2월 12일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전투는 12시간의 혈투 끝에 권율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왜장 ‘우키다 히데이에’가 중상을 입었을 만큼 일본으로서도 개전 이래 가장 치열했고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본토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놀랐던 전투였다. 이어승 장군이 이끄는 명군(明軍)을 벽제관 전투에서 대패시킨 왜군이 승전의 기세를 몰아 3만 왜병으로 토성에다 규모가 크지 않은 행주산성을 에워쌌다. 당시 왜장 ‘우키다 히데이에’는 치사율과 명종들이 화살보다 5배나 좋은 조총으로 무장한 3만 대군을 7개부대로 나누어 기세 좋게 행주산성으로 쳐 들어 왔다.

당시 조선군은 김천일 의병장과 승려 처영이 이끄는 의병과 승병이 주축이 된 조선군은 3천 명이 되지 못했다. 이 전투를 지휘한 권율 장군은 사거리가 1.5~2km인 신기전으로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왜적에게 날려 기선을 제압하고 왜병이 행주성 가까이 에 이르렀을 땐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와 승자총(勝字銃), 활로 대응했다.

조선군의 최대위기는 승병들이 지켰던 구역이 ‘고야야끼’가 지휘하는 7군에게 뚫려 성벽을 내주었지만 목숨을 건 승병들의 백병전으로 물리쳤다. 추위에 떨고 무기와 보급품마저 형편없었던 조선군이 10배가 넘는 왜군을 상대로 1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대첩까지는 권율 장군의 리더십과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을 대패시킨 왜적이 한양 근처에서 가장 큰 군세(軍勢)를 가진 권율 부대를 노리는 김새를 미리 알아차린 권율 장군은 철저한 대비를 했다. 권율 장군은 일단계 작전으로 한번에 100발씩 쏘아 올린 신기전(神機箭)으로 출발선에 있던 왜병을 수없이 쓰러 뜨려 먼저 사기를 꺾었다.

다음 작전은 행주성 가까이 다가선 왜병에게 한 번에 첩한 15개가 장전되는 승자총으로, 성벽을 기어오르는 근접전에서는 비격진천뢰로, 마지막엔 백병전에 능한 왜병을 상대로 부녀자들이 덧치마에 날라 온 돌을 던지고 몸싸움에서 이겼다. 열배가 넘는 병력을 눈앞에 두고도 군심(軍心)을 흔들이지 않게 하고 3단계 이상의 작전계획을 치밀게 세운 리더십이 최대 승리로 갔으며 임진왜란을 끝내게 하는 협상의 길을 열은 최고의 지휘관이자 충신이었다.

당시 조선인구 천만 명에게 전쟁에서 벗어날 꿈을 심어 주신 분이시며 외침을 930차례나 받았던 우리나라 전사(戰死)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대첩이었다. 그런데도 권율 장군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향례(享禮)를 봉행하고 변변한 기념사업이 없다.

안동권씨 대종회 권해옥 회장은 지난해 5월 취임이후로,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했던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기념제 국가행사 격상” 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달까지 전국의 족친 5, 500명이 서명을 마쳤다. 권해옥 회장은 올 연말까지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고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 족친들이 모이기가 쉬운 추향 때까지 1만 명 서명운동에 꼭 자신의 이름을 올려 줄 것을 당부 드린다. “행주대첩 기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 시키는 것이 안동권문의 정체성을 끌어 올리는 계기도 되지만 국가가 어려움을 때마다 늘 민초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아동권문의 정신, 즉 현조(賢祖)들의 빛나는 마음들을 알리는 주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1만 명 서명 운동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꼭 권하고 싶다. 더욱이 日本은 재무장을 하는 등 옛 제국주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이런 시기일수록 권율 도원수의 리더십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들어 갈 수 있도록 “행주대첩 승전 기념제”를 국가 행사로 격상하려는 국민 청원 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니 오늘 바로 서명 운동에 참여하자.

편집위원장 권오신

추밀공, 충헌공 추향제 봉행

추밀공파종회(회장 권경석)는 10월 21일 10시 파주시 장단군 하포리에서 추밀공과 충헌공 추향제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먼저 추밀공 향사에는 초헌관 권영부, 아헌관 권태균, 종헌관 권점하, 대축 권학주 등으로 각각 분방하고 집례는 권영준이 담당하였다. 추밀공 향사를 마치고 권경일 추밀공파종회 사무처장 사회로 권영빈 사무국장의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참석자 전원 권국장을 위해 묵념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충헌공 향사에는 초헌관 권현식, 아헌관 권영익(목사

공 총무), 종헌관 권오주, 대축 권학주 등으로 각각 분정하고 권영준은 추밀공 향사에 이어 충헌공 집례도 맡아서 진행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아침 8시 30분에 버스 2대가 출발하고, 대전에서 버스 1대, 충주 등에서 승용차로 200여명의 족친들이 운집하였다. 11시 30분 추향제를 모두 마치고 족친들은 준비된 점심을 먹고 한 대는 광화문으로 출발하고 또 한 대의 버스로는 권영빈 사무국장 빈소에 문상하기 위해 이대목동병원으로 향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부호장공파종회 파조 추향제 봉행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영건)는 파조의 다섯 번째 추향제를 10월 13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참제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분정례(分定禮)는 권중대(權重大)가 쓰고 초헌관 권오운(權五雲), 아헌관 권병문(權丙文), 종헌관 권영건(權寧健), 축 권영상(權寧相), 집례 권영각(權寧瓘)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700여 년 만에 파조 고유제를 봉행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 맞이하는 추향제에 헌관들은 검정색 제복(祭服)으로 갈아입고 일원정 마루에서 참제원들과 함께 1시간 이상 추향제를 봉행하는데 흐트러짐 없이 파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다하였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오운 도유사는 인사를 통해 “오늘 파조 추향제에 참제원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봉행한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권영건 파종회장도 인사말에서 “참제원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파조 추향제를 봉행하여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영문 제례위원장은 이날 권오운 도유사가 50만 원의 성금을 낸 것을 비롯하여 멀리 안동권씨 서울금천구종친회장 권대복씨(대종회 부총제)가 금일봉을 전해오는 등 파내(派內) 6개 소문중, 개인 등에서 모두 390여만 원의 성금이 접수되었다 “고 밝혔다. 추향제가 끝나자 참제원 전원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문 제례위원장은 내년 추향제 도유사에 권병문씨를 선정, 망기(望記)를 보냈다. <보도부장 권영건>

검교공파종회 파조 추향제 봉행



검교공파종회(회장 권태강)는 10월 22일(월) 오전 10시 경북 상주시 공검면 울곡2리 파조 단소에서 족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조 추향제를 엄숙하게 봉행했다. 초헌관 권오학, 아헌관 권태산, 종헌관 권춘택, 대축 권오섭, 집례 권용태로

각각 분정하였다. 추향제를 마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교공파 족보를 30년 만에 다시 편찬하기로 의결했다.

총무부장 권영호

행주서원 권율 도원수 추향제 봉행



권율 도원수를 기리는 행주서원 추향제가 10월 23일 고양시 행주서원에서 봉행되었다. 초헌관 이승엽 고양문화원장, 아헌관 선호술 고양시유도회장, 종헌관에는 총장사 제전위원장 이충구, 보성선씨 문중대표 선호발, 풍양조씨 문중대표, 황주변씨 문중대표 변혁, 전주이씨 문중대표, 압해정씨 문중대표 정기철, 뇌목당대사고양문화 김백호 등으로 각각 분정하였다. 대축에는 용강서원 권정택 원장, 집례는 행주서원 유사 이현규가 담당하였다. 권율 도원수는 임진왜란의 전공을 인정받아 이순신 장군과 함께 선조37년(1604)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된다. 현종 8년(1842)에는 왕명으로 권율 도원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기공사(紀功祠)가 건립된다. 1843년에는 사액을 받고 행주서원으로 격상된다. 그러니까 행주서원은 권율 도원수를 제

향하고 있는 사당인 것이다. 그러다 행주대첩 때 함께 싸웠던 선거이 등 여섯 장수도 권율 도원수와 함께 행주서원에 배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2008년부터 선거이, 조경, 변이중, 이빈, 정길, 처영 등과 함께 합동으로 춘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권율 도원수를 제향하는 행주서원은 매년 봄 가을로 춘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권문에서 참여하는 족친은 권정택 부회장 등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권정택 부회장은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행주서원 춘추향제가 봉행될 때마다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종회에서는 권율 도원수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권율 도원수를 제향하고 있는 행주서원의 춘추향제에는 족친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북야공파종회 2018 운영위원회 개최



권기호 회장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 2018년 9월부터 종보 대금 지로용지(1년 3만원)를 발송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예금계좌 : 농협 301-0235-6546-41(안동권씨 대종회)
-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